

〈나의寢室로〉의 再解釋

李 起 哲

目 次

- | | |
|---------------------|---------------|
| 1. 머 리 말 | 3. 〈나의寢室로〉재해석 |
| 2. 〈나의寢室로〉해석의 비교 검토 | 4. 맺 음 말 |

1. 머 리 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좋은 작품에 대해 기울이는 비평적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그 비평의 수준에 관계없이 작품에 대해 갖는 비평적 관심과 빈도는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그 작품의 성공도를 말해 주는 기준이 된다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보들레르의 14행시 〈고양이Les chats〉에 대해 가진 로만 야콥슨, 레비스트로스의 관심 이후 미셸 리파테르, 르네웰렉, 빅토르 어얼리치의 계속된 관심은 그것의 좋은 반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의 경우도 좋은 작품에 대해 기울인 문학연구나 비평의 관심과 애정은 이미 연구사라는 학문적 체계를 마련해야 할 정도로 깊고 넓은 것이다. 산문문학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김소월, 이상화, 한용운, 이상 등의 연구는 논문이나 비평문을 합쳐 100편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서 〈나의寢室로〉는 이 시가 가지는 의미나 주제, 구조상의 성패에 앞서 20년대 낭만시의 대표적인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는 것이며, 그러기에 이 시에 대한 관심은 당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시를 향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란 아름답게 느낄 수 있으면 만족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시를 연구하거나 혹은 비평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가 아름답다면 왜 아름다우며 어디가 어떻게 아름다운가를 밝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상당수의 비평문과 논문으로 진척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있어 온 〈나의寢室로〉에 대한 해석의 방향이 어떠했으며 어떤 오류들이 있었는가? 오류가 있었다면 그 오류들은 어떻게 재해석이 가능한가를 비교 검토하려고 한다. 이같은 고찰은 애매성

(ambiguity)의 문제뿐 아니라 오독(misreading)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그것의 바른 읽기와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연구와 비평의 견해들의 동감과 이견을 압축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李相和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이미 참고문헌상으로 보아 1922년에서 1979년까지, 소위 20년대에서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100편이이고¹⁾, 그 후까지를 산정하면 다시 10여편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서 〈나의寢室로〉에 관한 논문이나 비평문만도 40편에 가깝지만, 부분적인 언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의寢室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들만을 택해서 비교적 특징 있고 중요한 것만을 중심으로 그 비평과 해석적 관점을 비교 검증한다. 여기서 대상이 될 논문이나 비평문은 다음과 같다.

- (1) 어두운 빛의 美學 - 나의寢室로의 作品分析 -, 吳世榮 李相和의 서정시와 그 아름다움 새문사(1981)
- (2) 李相和의 〈나의寢室로〉분석과 이해, 趙東一 윗책
- (3) 李相和論 〈나의寢室로〉를 중심으로, 金春洙 詩論 松園文化社(1976)
- (4) 李相和詩와 그 美的 特質, 李起賢 李相和의 서정시와 그 아름다움 앞의 책
- (5) 浪漫과 抵抗의 한계성 - 李相和의 시세계, 金澤東 윗책
- (6) 李相和 시에 나타난 공간 이미지와 시간 의식, 송명희 國文學資料論文集 大堤閣(1986)
- (7) 환상적 관능미의 추구, 조창환 한국 대표시 평설 문학세계사(1983)
- (8) 나의 침실은 예수가 묻혔던 부활의 동굴, 정현기 문학사상 1986년 6월
- (9) 李相和代表詩 20편 이렇게 읽는다, 李昇薰 윗책
- (10) 李相和 研究, 李起哲 作家研究의 실천 영남대출판부(1986)

2. 〈나의寢室로〉 해석의 비교 검토

이상의 글들을 중심으로 〈나의寢室로〉가 갖는 의미와 내용의 흐름을 비교하면서 그 논의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검토하고, 어떻게 읽어야 좀더 이 시에 가까운 읽기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1) 이기철, 이상화 연구, 연구사 검토, 작가연구의 실천, 영남대출판부, p. 42(1986)

는 먼저 이 시 원문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설명은 문제 중심으로 진행한다.

나의 寢室로

—「가장 아름답고 오랜 것은 오죽 꿈속에만 잇서라」— 내말

1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疲困하여 돌아가려는도다,

2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느라.

3 「마돈나」 오렴으나, 네 집에서 눈으로 遺傳하든 眞珠는, 다두고 몸만 오느라,

4 빨리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도 모르게 숨는 두 별이어라,

5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6 아, 어느듯 첫닭이 울고 — 못개가, 짓도다, 나의 아씨여. 너도 듯느라.

7 「마돈나」지난밤이 새도록, 내손수 닳가둔 寢室로가자, 寢室로!

8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귀가 듣는 발자욱 — 오 너의 것이냐?

9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업시 하소연하는 내맘의 燭불을 바라,

10 羊털가튼 바람결에도 窒息이되어, 알뿌론 연기로 꺼지려는도다.

11 「마돈나」 오느라 가자, 암산 그림애가, 독갑이처럼, 발도업시 이곳 갓가이 오도다,

12 아, 행여나, 누가 볼는지 — 가슴이 뛰누나,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13 「마돈나」 날이 새련다, 빨리오렴으나, 寺院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전에

14 내손이 내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밤과 가티. 오랜나라로 가고말자

15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잇는 내 寢室 열이도 업느니!

16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가티 가볍게 오렴으나, 나의 아씨여, 네가 오느냐?

17 「마돈나」 가엽서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업는 소리를 내귀가 들음은 —

18 내몸에 피란피 — 가슴의 샘이, 말라버린듯, 마음과 목이 타려는도다.

19 「마돈나」 언젠들 안갈수 잇스라, 갈테면, 우리가 가자 끄울려 가지말고!

20 너는 내말을 밋는「마리아」— 내 寢室이 復活의 洞窟임을 네야알면만……

21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없는 꿈, 사람이 안고 궁그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안흐니,

22. 아, 어린애 가슴처럼 歲月 모르는 나의 寢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23 「마돈나」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하고, 어둔밤 물결도 자자지려는도다.

24 아, 안개가 살아지기 전으로, 네가 와야지,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 〈緋音 가운데서〉

1행, 「마돈나」, 윗 논문 (1)에서는 마돈나를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 없는 연인으로 보며, 연인의 정신적 승화인 영원한 여성(eternal feminine)으로 본다. 그러면서 영원한 여성의 원형적 상징이 성모 마리아와 연결된 것이라 해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견해는 송옥의 〈詩와 知性〉²⁾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논문 (2)는 마돈나는 님의 서양식 호칭을 넘어서 기독교적 의미를 띠며 마리아에게 부활을 다짐하는 시인 자신은 예수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고 본다. 논문 (3)은 마돈나는 이탈리아어 Madonna 즉 성모 마리아를 말함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성모 마리아처럼 섬기고 있다는 열렬한 사모의 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만, 이 말은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다. 논문 (5)는 마돈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지만, 조국이나 추상적 연인을 불렀다고 보면 애매성을 면치 못한다고 하면서 이상화가 1922~1924년까지 동경생활을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유보화를 알았으므로 마돈나는 유보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견해는 김기진의 견해를 연대적으로 실증한 것이다. 논문 (6)은 마돈나는 성모 마리아(인류를 구원), 화자가 사랑하는 젊은 여성(정적 자아를 구원), 조국(민족해방)의 세 가지 의미를 모두 지니며 마돈나가 성모 마리아이건 사랑하는 젊은 여성이건 간에 화자의 불안, 공포, 피곤을 감싸 줄 수 있는 것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논문 (7)은 마돈나를 육체적 욕망의 충족대상, 성적 충동과 그 배설대상인 마돈나 즉 연인으로 본다. (8)은 마돈나를 여성 호칭 혹은 情事와 관련시키는 것은 誤讀의 시초가 되며 그러므로 마돈나는 예수의 권능으로 병을 고친 막달라 마리아에 우의된 것으로, 한민족에게 복음(광복)을 전해 줄 메신저로서의 마돈나(마리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문 (10)은, 마돈나는 정신적 대상이기만 한 마돈나로 보기 보다는 육체를 가진 대상인 마돈나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³⁾

2) 송옥, 시학평전 일조각(1963), p. 388.

3) 시어의 해석에서 별도로 설명이 없는 것은 그 논문자체가 해당시어에 대해

위와 같은 해석을 종합해 볼 때, 마돈나는 포괄적 의미를 띤 말로 보인다.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水蜜桃의 가슴을 지닌, 몸만 오라고 부르는, 침실로 가기 위해 기다리는, 내목을 안는, 사람이 안고 쿡그는 마돈나이므로 마돈나=연인(육체를 가진 여인)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가 우의적이고 상징적이며 환상성을 띠고 있다고 볼 때, 자신의 피로, 불안을 감싸 줄 수 있는 구원의 여성에 대한 일반적 호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돈나를 조국이나 광복으로 보는 것은 시 전체의 흐름을 보아 비약적 해석이며, 이 시에서의 끊어 넘치는 정열은 추상적 대상에 대한 정열이라기 보다는 실지의 연인이었던 유보화에 대한 정열을 감정이입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밤」, 논문(2)는 여기서의 「밤」을 아직도 빛이 남아 있어서 마돈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고 논문(6)은 「밤」은 추억사적 시간, 환상적 시간, 주관적 경험적 시간이며, 새벽은 역사적 시간, 객관적 자연적 시간이라고 해석했으며, 논문(7)은 밤도 피곤하여 돌아가려는 시간은 깊은 밤,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다가 오는 시간이라 했고, 논문(10)은 이 시의 1~6련은 밤 즉 자정 무렵에서 새벽까지의 시간을, 7~12련은, 새벽에서 동트기까지의 시간을 말한 것으로, 1행의 밤을 자정 무렵의 시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밤과 새벽은 모두 객관적 시간을 말하며, 이 시의 7련에서의 「날이 새린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1행의 밤은 아직 빛이 남아 있는 시간도 새벽의 시간도 아닌 자정을 넘어서는 시간으로 봄이 좋을 것이다.

「목거지」, 논문(1)은 세속적 쾌락과 본능의 충족을 즐기는 모임으로서, 성령과의 일체감을 통하여 존재 초월을 이룩코자 하는 제의(祭儀)적 의미를 지닌 침실과의 대립개념으로 보고, 논문(3)은 목거지를 의미불통의 말로 보며, 김용직은 여러 사람이 모여 흥청대는 잔치마당의 대구지방 방언이라 보았고, 또한 글(9)와(10)은 목거지를 잔치마당, 연회 등으로 보았다. 그러나 「목거지」를 논문(1)처럼, 세속적 쾌락과 본능의 충족을 즐기는 모임으로 보고 성령과의 일체감을 통해 존재초월을 기도하는 「침실」과 대립개념으로 보는 견해는 논리적 허구일 가능성이 크며 무리한 해석일 수 있다. 우선 이상화의 작품들 가운데 「목거지」라는 말이 쓰인 예를 발췌해 보면

설명하지 않은 것임.

그 밤의 어둠에서 씌여난 뒤직이가튼 신령은
光明의 묵거지란 이름도 모르고 〈緋音의 序詞〉

뻘저리는 좋은맛에 자스려지기는
보기 좋게 잘도자란 果樹園의 묵거지다 〈나는 해를 먹다〉

우태로 부부는 십이월 삼십일 오후 아홉시부터 열두시 까지 사이에 마려훈
이가 그린〈물우로 거러가는 크리스트〉란 그림을 전등으로 보시게스리 묵거지
를 열터이온즉 소만왕림하심을 바라나이다. 〈艷福 十五의一, 時代日報 연재
134회분〉

여러 손님은 남에게 자랑을 하려고 일부러 이름잇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묵거지에서는 이런 것이 체면치레로 알든 것이었다. 〈艷福 十八의三, 時
代日報 연재 158회 말〉

등과 같다. 이상화의 시나 번역소설 가운데 「묵거지」가 나오는 예가 위와
같이 5회임을 알 수 있는데, 위의 예에서 볼 때 「묵거지」는 세속적 쾌락
이나 본능의 충족을 즐기는 모임만으로는 볼 수가 없다. 「光明의 묵거지」
란 어둠을 뚫고 나가 光明하게 함께 사는 묵거지를 뜻하고 「果樹園의 묵
거지」란 과일나무의 우거져 있음을 말하며, 「물우로 거러가는 크리스트」
라는 그림은 聖畵를 가리키며, 성화를 보기 위해 여는 묵거지를 가리킴이
므로 「묵거지」라는 말은 성숙을 따지기 전에 다만 모임, 잔치마당, 연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疲困하여 도라가려는도다」 논문 (1)은 묵거지와 같은 향락적 삶을 버
리고 본래적인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으로 보고, (10)은 「밤도 피곤하여」
에서 화자 자신이 그렇듯이 밤도 피곤하다로 보아, 화자도 휴식을 원하듯
이 밤도 휴식을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1행은, 사랑하는 이
여, 지금은 밤조차도 모임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나처럼 휴식할 곳으로 가
려고 한다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2행, 「水蜜桃의 네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논문 (1)은 「수밀도의 네가슴」
을 여성의 지체를 미화하기 위해 동원한 소유격형 은유로 보고, 장백일은
天桃와 같이 무릉도원이나 옥황상제가 들고 있는 복숭아로 보아 신화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논문 (3)은 이 부분을 아주 관능적인 부분이라 하여 여
성의 성 상징으로 보았고, 논문 (7)은 성적 욕망의 표출로, (10)은 정신적
인 대상이라기 보다 육체를 가진 대상 즉 연인을 표현한 말로 보았다. 「

이슬이 맺도록」이란 밤을 달려 왔기 때문에 가슴에 이슬이 맺힌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구절은 담홍색의 수밀도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처럼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여성의 가슴을 말하려는 것으로 읽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러므로 1련에서는 화자는 지금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고 이 피로를 풀기 위해 휴식처로 가려하는데 거기에는 화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감싸고 풀어 줄 연인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 시는 김기진에 의하면 1918년 작이라 하고⁴ 김학동에 의하면 1923년 작이라 하지만,⁵ 1918년 이후 1923년까지에 이상화는 중앙고보를 중퇴하고 금강산 유람을 하면서 마치 거지처럼 되어 귀향한 일이 있고, 1919년 계성학교(啓聖學校) 학생들의 3·1운동 봉기 배후조종 이후 일제 관헌의 눈을 피해서 여러 지방을 떠돌아 다녔고, 프랑스 유학을 위해 도동했다가 1923년 9월 관동진재(關東震災)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구사일생으로 귀국했으며, 유보화가 폐병으로 죽게 되는 과정 등을 겪기 때문에 반드시 항일운동이 아니라 해도 심신이 몹시 피로한 상태였음엔 틀림없고 그래서 자기의 심신의 피로를 휴식하면서, 누구의 위무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행, 「눈으로 遺傳하던 眞珠는 다 두고 몸만 오느라」, 논문 (1)은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는 눈물 혹은 일상적 가치이며, 그리하여 이 구절은 눈물이나 일상적 가치는 버리고 몸만 오라는 뜻으로 보았고, 논문 (3)은 이 구절을 값 나가는 장식품 즉 걸치레를 말하지만 「눈으로 유전」한다는 말은 의미가 적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김용직은 이것을 「눈물」로 본 최초의 해석자이고 (6)은 이 말이 눈물의 은유이긴 하지만 추상화되어 있다고 말하고 (7)은 영혼이나 정신성을 표현한 말로, (9)는 「진주」를 눈물로 보면서도 눈물은 다 두고 몸만 오라고 하면 해석상의 충돌이 일어나므로 모호한 말일 뿐이라고 했고, (10)은 가보(家寶)로 내려 오는 유물 또는 장식품으로 보았다. 가보란 벽장이나 진열장에 두고 눈으로만 보면서 대대로 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구절은, 마돈나여, 너의 집에서 가보로 전해지던 유물이나 장식품(금팔찌, 목걸이 등) 등은 다 두고 몸만 오라는 것이며, 화자가 기다리는 것은 실체를 가진 여인, 그리고 그의 몸이지 그외의 장식품들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4행, 「밝음이 오면 어대지도 모르게 숨는 두별」 여기에 대해서 (1)은 「밝음이 오면 숨는 별」 즉 밝음이 오면 소멸할 수 밖에 없는 별로, 이 구

4) 김기진, 이상화형, 신천지 9권 9호, 1954년 9월호, p. 154.

5) 김학동, 尙火李相和論 한국근대시인연구 I. 일조각, p. 176.

절은 파멸만이 존재하는 일상적 세속적 삶을 벗어나 「부활의 동굴」 즉 초월의 생을 이루자는 것으로 보고, (3)은 여기서의 사랑은 밝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사랑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4행은 화자가 연인과 함께 휴식처로 가고자 하지만 그 휴식처는 밝은 곳 혹은 세인과 더불어 사는 장소가 아니라 화자만 아는 어느 은밀한 장소이며 화자 자신은 세속에서 이미 지쳐 있다는 표현이 된다.

5행, 「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이 구절에 대해서 (3)은, 2련의 정황을 더욱 절박하게 해 준다고 했고 (4)는 빛을 등진 장막 속, 어둠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두 사이를 말해 준다고 했으며, 金玉順은 정금철의 논문을 빌어 이 구절이 보들레르의 시 〈마돈나에게〉에 나오는 「마음의 어두운 구석 깊이 au fond de ma detresse」에서 영향 받았을 것이라고 했고⁶⁾, 여타의 글들은 여기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행에서 보면 「구석지고도 어둔 거리」는 「마음의 거리」로 표현되어 있으며, 「두려워 떨며 기다리는」것도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마음은 상호지시적 기능을 가진 것이며, 이 시의 시간과 장소들은 구체적 현실적인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시간과 장소인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거리는 밝고 개방적인 거리는 아니다.

6행 「어느덧 첫닭이 울고 못개가 짓도다, 나의 아씨여, 너도 듯느냐」, 이에 대해서 논문 (2)는 화자의 불안의식을 말하는 것으로만 보았고, (6)은 밤의 추상성을 벗어나기 위해 개, 닭이 등장하여 새벽을 구체화시키고자 한다고 보았지만, 이 구절은 8련의 「내 귀가 듣는 발자욱 — 오 너의 것이냐」와 17련의 「엮는 소리를 내귀가 들음은」 등과 함께 현실적,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초조함을 더욱 긴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매재(vehicle)들로, 김안서의 말처럼 이 시는 象徵이며, 현실과 꿈이 얹히어 신비롭음은 調合을 내이는 것⁷⁾이며 김기진의 말처럼, 「나의 寢室로」— 이것은 놀랄 만큼 기이한 幻想을 노래한 것⁸⁾으로 구체적인 사물을 지칭한다기 보다 우의적이고 상징적인 말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7행, 「寢室」, 이 시에서 비로소 寢室이 등장하는 행이다. 寢室에 대해서 (1)은 「목거지」의 세속적 일상성과의 대립으로 죽음과 재생의 의미를 띤

6) 김옥순, 낭만적 영웅주의에서 예술적 승화로, 문학사상 1986년 6월호.

7) 김안서, 시단의 1년, 개벽 42호 1923년 12월호 50~51.

8) 김기진, 현시단의 시인, 개벽 58호 1925년 4월호 25~26.

제의적인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고 보며 (2)는 전반부에서는 「침실」을 휴식과 사랑의 장소로 나타내다가 후반에 오면 「침실」은 피안이며 죽음의 세계로 나타난다고 본다. 죽음은 두려운 세계이므로 죽음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사랑 혹은 사랑하는 연인을 부른다는 것이다. (3)은 「침실」을 新房처럼 깨끗이 닦아둔 곳으로 보고 애인을 맞는 정성을 엿볼 수 있다고 하며, (6)은 「침실」이 휴식과 사랑의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가지면서 그것이 누우침과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것이므로 通過儀式을 겪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피안이며, 그러므로 이 때의 「침실」은 화자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비현실적 공간이며 현실의 어려움을 잊어 보겠다는 도피적인 공간이라고 본다. (7)은 「침실」을 성행위의 장소로 보고 (10)은 이 시에서 핵심적인 말이 「나의 아씨」와 「침실」이며 그 중에서도 「침실」의 위치는 음보분할상의 위치로 보아 한 두번 변할 수도 있지만, 「나의 아씨」의 위치는 고정불변으로 숙명적인 기다림의 대상이라 한다.⁹⁾ 그러므로 이 시에서의 「침실」은 「나의 아씨」 다음으로 중요한 말이지만, 나의아씨가 나타나지 않는 한 침실은 무용한 것이며 다만 화자의 동경과 갈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화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식장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의 의미를 띤다. 그러나 「침실」은 지난 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 둔 곳이므로 (2)가 말하는 바의 시인 자신도 아직 침실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말은 옳지 않다.

8행, 「낮은 달은 빠지려는데」 (6)은 이 구절을 새벽을 알리는 말로만 보았고 나머지 논문들은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낮은 달」은 밤이 오래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달이 뜬 지가 오래되어 이제 달은 빛을 잃었다는 뜻, 달이 지려는 때라는 뜻이다.

「내 귀가 듣는 발자욱 - 오 너의 것이냐」 (7)은 이 구절을 시인의 심리적 갈등에서 일어난 幻聽으로 보고 있고, 여타 논문은 여기에 대해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 시의 흐름으로 보아 (7)의 해석은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낮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욱 - 오 너의 것이냐」는 연인을 데리고 휴식처로 가려고 연인을 기다리지만 연인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초조한 마음에서 발자욱 소리를 환청으로 듣는 것이다.

9행, 「짧은 심지」, 이에 대해 설명된 논문은 없으나, 기다리느라고 오래 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짧게 닳은 촛불의 심지를 말하는 것으로 읽을 수

9) 이기철, 「나의침실로」의 구조, 영남어문학 7집(1980) 및 한국현대시 작품론, 문장사(1981) 참조.

있다.

「더우잡고」(9)의 설명대로 높은 데에 오르려고 무엇을 끌어 잡는 다의 함남·전남 방언. 「눈물도 업시」 설명된 논문은 없으나, 너무 초조히 기다려 눈물도 매달랐거나 눈물 흘릴 경황도 없다는 뜻이고, 촛불의 눈물 흘림과 화자의 눈물 없음을 대조적으로 보인곳, 「내맘의 燭불」, 이 구절에 대해서 (3)은 촛불이 타들어 가는 것과 마음이 닳는 것을 비교한 것으로 보았고, (10)은 위태롭고 조바심 나는 나약한 촛불로 화자의 마음을 가리킨 것으로 보았다.

「알푸른」, (9)는 알브스럼한의 방언인 듯하다고 보았으나 여리고 푸르다의 복합어로 봄이 옳을 듯하다.

10행, 「羊털가튼 바람결에도 窒息이 되어 알푸른 연기로 꺼지려는도다」(1)의 논문은 이 행을 현존적 삶을 허무한 존재로 보는 견해라 하고, (7)은 幻視의 표현이라고 보며, (10)은 양털같은 바람결에도 견디지 못하고 질식하여 꺼진다는 것은 기다리다 지친 화자의 마음의 초조함을 가리키는 것이라 보았다. 그러므로 5련은, 내 마음은 기다리노라고 오래 켜들고 있었기 때문에 짧게 타들어 간 촛불과 같으며 그러한 마음은 너무 초조하게 기다려서 눈물 흘릴 경황도 없고 눈물도 매달랐으며, 너무도 초조하고 연약하여 양털같은 가는 바람에도 꺼질 듯하다는 것으로 풀이하면 될 것이다.

11행, 「압산 그림애」 논문 (1)은 악마로 보고 (2)는 그림자로 보며 「독잡이처럼 발도 업시 이곳 갓가이 오도다」를 논문 (1)은 앞산 그림애가 발소리도 없이 악마처럼 다가와서 자신의 생을 파멸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표현으로 보고, (6)은 새벽에 대한 강박 관념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의 의식, 과거 지향성, 보수주의적 가치를 드러낸 곳으로 보며 (7)은 이것 역시 幻視로 보았고 (9)는 달이 지고 새벽이 옴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압산」은 대구의 남쪽 산인 대덕산을 가리키며(대구 사람들은 이 산을 그냥 앞산·앞산공원·앞산비행장이라고 부른다) 앞산 그림자기 발도 없이 이곳 가까이 온다는 것은 밤이 깊었다. 혹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은 지 오래다는 표현으로 읽으면 좋을 것이다.

12행, 「행어나 누가 불는지 가슴이 뛰누나 -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3)과 (6)이 공히 기다림과 초조함의 고조를 말하는 것이라 보았고, 또한 그 견해대로 읽을 수 밖에 없다.

13행, 「寺院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1)은 이 구절을 시간의 한

계상환을 말하며 쇠북은 제의에 있어서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라 보고 (6)은 북이 치고 날이 새는 것을 알리는 시간적 긴장의 되풀이로 보며 (9)는 문덕수의 견해를 빌어 사원의 종소리가 울리기 전인 한밤이라야 만나서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데 종소리가 울린 뒤에는 이미 날이 새었으므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 행은 이 시의 후반부의 시작이고 시간적으로는 1행에서 12행까지가 자정에서 새벽을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부터 새벽을 넘어 동트기 까지 즉 날이 새려는 상황을 말한다. 사원의 쇠북은 새벽 예불의 의식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9)의 견해대로 읽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4행, 「네손이 내목을 안아라」 (7)은 이 구절을 육체만 필요한 애인과 함께 가서 할 수 있는 행위(성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았고, (9)는 「내손」이 「너」를 안는 것이 아니라 「네손」이 「나」를 안게 한다는 표현은 시의 화자인 「나」와 「마돈나」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음을 암시하며 마돈나는 화자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지나치게 기독교적인 입장을 빌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네 손이 내 목을 안는 것과 같은 사랑의 포시를 보여 달라, 그러면 나는 너를 안고 오랜 나라로 갈 것이라라는 표현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통적 해석방법을 차용한다면 이상화는 본래 대대의 유가집안에서 엄격한 가정 사숙의 훈도를 받았고, 15세 이후 받은 신교육과 함께 일본에 간 뒤 서구의 문명에 접근했던 사람으로 유가의식과 서구사상을 함께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다.

「오랜나라로 가고 말자」, (1)과 (2)는 「오랜나라」를 죽음의 세계로, (3)은 사랑이 생명의 치열한 연소임을 보이는 곳으로 (9)는 영원한 나라로 보았다. 그러므로 오랜 나라는 생명의 치열한 연소 뒤에 오는 것, 영원한 나라 즉 죽음의 나라로 보고, 현실과 이승의 세계에서 얻을 수 없는 휴식과 편안을 죽음, 피안의 세계에서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15행, 「늪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 다리 건너 있는 내 寢室」, 김용직은 이 때의 침실을 늪우침과 외나무 다리 건너 있다는 표현으로 보아 시를 조국 광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이며¹⁰⁾, 그것이 조국광복을 의미한다면 늪우침과 두려움의 건너 편에 있을리가 없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논문 (2)는 침실이 늪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에 있다면 시인도 아직

10) 김용직, 의도의 오류와 의도비평 국문학논집 단국대 국어국문학과(1972) 150-151.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고, 그러한 곳은 바로 죽음의 세계라 하였고, (3)은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가능한 사람이라면 아주 심각한 사람, 아주 도달하기 어려운 사람을 뜻한다고 하여 확실한 해석을 피하고 있다. (6)은 이 표현이 관념적이고 현실성을 배제한 표현이며 죽음이기 보다는 도달하기 어려움의 상징이라 하고 (9)는 침실을,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침실을 말하려고 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화자가 가고자 하는 침실은 은밀하여 아무도 거기를 아는 사람이 없고, 또한 열 사람도 없는 곳에 있고 또한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시인 자신만 갈 수 있는,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시인 자신의 상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뉘우침」을 강조 해석하게 되면 더욱 해석에 충돌이 일어난다. 이 시는 마지막 행까지 마돈나를 기다리면서도 그 기다림을 뉘우치거나 후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기다림은 아주 정당하고 불변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때의 「뉘우침」은 「안타깝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보면 될 것이다.

16행, 「그와 가티 가볍게 오렴으나」 별도의 해석을 시도한 예가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가볍게, 주저하지 말고, 빨리 아씨여 오라고 부르는 곳이다.

17행, 「가엾서라 나는 미치고 말었는가」(1)은 이 부분을, 님과 함께 존재초월을 기도하지만 님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세속적인 생의 태도로 돌아 갈 수도 없고, 초월의 세계로 지향할 수도 없는 존재론적 딜레마를 표현한 것이라 보고, (7)은 幻視나 幻聽으로 발전한 심리적 갈등을 말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너무도 초조하고 애타게 기다려도 오지 않는 「마돈나」 때문에 환각에 사로잡히고 마돈나와 함께 가고자 하는 피안의 세계로도 갈 수 없으며 그렇다고 피로하고 지쳐 버린 그 현실로 돌아 가지도 못하는(실지로는 그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시인 자신의 방황감을 표현한 곳이다.

「엷는 소리를 내귀가 들음은」 송옥은 이 행을 사춘기에 있는 문학소년의 소산이며, 시인의 정열을 그대로 털어 놓고 동정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한 태도라고 비판했고 논문 (7)은 역시 이것을 환청으로 보았다. 그러나 17행은 18행과 함께 시인의 초조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 주는 곳이며, 그러기에 내 몸에 피란 피 가슴의 샘이 말라 버릴 듯하고 미쳐 버린 듯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19행, 「언젠들 안갈 수 잇스라 갈테면 우리가 가자 끄울러 가지 말고」 (1)은 이 구절을 존재초월인 죽음을 능동적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2)는 죽음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택해야 할 길이라고 한 것으로 보며, (3)은 우리는 인간이므로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저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으로 그 길로 뛰어 들어야 한다는 표현으로 보며, (9)는 언제인가는 가야 할 침실 즉 죽음을 향해 감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부분의 해석은 위와 같이 대부분의 글이 능동적으로 죽음을 맞는 자세로 통일되어 있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행, 「너는 내말을 밋는 마리아」 (1)은 마리아를 기독교적 입장이 아니라도 구원의 여성상 즉 성모 마리아로 볼 수 있음을 말했고 (3)은 사랑하는 사람을 성모 마리아처럼 섬기고 있다는 열렬한 사모의 정을 나타낸 것이라 보면서도 이는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 못박았고, (8)은 「마돈나=아씨=너=마리아」와 같은 등식관계를 차용하면서 마리아는 예수가 부활한 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이 사실을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준 메신저 역할을 했던 마리아가 틀림없다고 주장하며, (9)도 (8)과 같이 보고 있다. 여기서는 (1)과 (3)의 견해가 같고 (8)과 (9)의 견해가 같음을 볼 수 있는데 보다 타당한 것은 이때의 마리아는 성서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차용하긴 했지만 기독교나 성서의 해석과는 관계가 먼 것이며, 자기의 연인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에 비유해서 쓴 것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더우기 이 시에서 연인을 「마리아」로도 「마돈나」로도 「너」로도 「아씨」로도 쓰고 있음을 볼 때 이 같은 해석은 더욱더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내 寢室이 復活의 洞窟임을 네야 알닌만」 (1)은 성서와 단군신화의 동굴을 빌어 침실을 부활의 동굴이라 하며, 이는 祭儀를 통한 죽음에서의 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2)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말하며, 그러기 위해 「마리아」라는 이름을 차용하여 침실이 부활의 장소로 바뀌도록 하고 있다고 하며, (3)은, 우리는 인간이므로 어차피 육체를 저버리지 못하지만 침실을 통해 부활이라는 즉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보았고 (4)는 침실과 부활을 동일시하여 이는 집단개념 이전의 개체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채돼된, 오직 화자와 마돈나에게만 인지된 처소라 본다. 또한 (6)은 부활의 동굴을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 「아름답고 오랜 거귀」 등과 같이 추상적 표현일 뿐이

라고 하고 (7)은 이것을 情事의 현장이라고 보면서 이 한 구절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으며, (8)에서는 「동굴」은 예수가 부활한 동굴이며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맨 먼저 보고 슬피 우는 사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던 것처럼 이 시의 화자도 부활의 동굴로 와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민족의 부활 소식을 빨리 전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는 속뜻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다. (9)는 이 구절이 죽음에 대한 재생의 뜻이라고 했고 (10)은 이 구절이 모든 인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장소임을 강조한 것이며, 「寢室」「復活」「洞窟」은 이 시의 핵심어들로 이러한 핵심어가 한 행에 계속되는 것은 작중화자의 급박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말은 정신적 피안과 육체적 안식처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위의 여러 견해는 크게 「寢室은 復活의 洞窟」을 죽음과 재생의 장소로 보거나 예수의 부활처럼 조국의 부활(해방)을 갈구하는 곳으로 보는 견해와 단순한 정사의 현장이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죽음, 재생이나 예수의 부활 보다는 인간적, 현실적 제약을 넘어 선 장소로 보자는 견해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20년대의 여타 시인들도 이러한 시어를 많이 썼음을 생각할 때 이 구절을 죽음과 재생, 예수의 부활 등으로만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정사의 현장이라고만 보기에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암시적인 데가 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죽음을 넘어서 구원한 사랑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가고자 하거나 시대적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 선 「오랜나라」로 가고자 하는 회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자칫 세속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침실」을 구원하고 신비스러운 부활이라는 성서적 의미에 의탁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다.

21행,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엮는 꿈, 사람이 안고 궁그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안흐니」(1)은 이 행을, 님이 부재하는 한 죽음과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것을 꿈으로 돌려 버리려하는, 화자가 꿈꾸는 존재로 변신함을 말한 것이라 보고, (2)는 「밤이 주는 꿈」은 침실에서 꾸는 꿈이고, 「우리가 엮는 꿈」은 밤이 아니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생각하는 꿈을 말하며 「목숨의 꿈」은 생명의 소멸인 죽음을 동경한다는 뜻을 지닌 꿈인데, 시인이 이 셋을 모두 같은 것이라 했으니 죽음으로 이 셋을 한꺼번에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며, (7)은 꿈을 욕망의 비실재적 충족을 의미한다고 보고 (8)은 꿈의 의미를 민족광복이나 예수의 부활로 보아야 하며 이렇게 볼 때 에로티시즘적 해석이 낄 틈새가 없어질 것이라 했고 (9)

는 (2)와 같은 해석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 행은 자면서 꾸는 꿈과 희망을 말하는 꿈은 살아 있음의 표현이고, 사람이 안고 궁그는 죽음의 꿈은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의 꿈은 생과 사를 말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삶은 불완전하고 단명한 것으로 구원하고 완전한 것은 죽음의 세계뿐이고 모든 삶은 결과적으로 죽음에 동화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이 행은 그 다음의 22행 「歲月모르는 침실」과 「아름답고 오랜 거리」라는 것이 곧 죽음의 세계, 명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해석은 더욱 타당성을 얻게 된다. 죽음을 아름답고 오랜 것으로 보는 것은 20년대 낭만주의나 상징주의적 시인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23행,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둔 밤 물결도 자자지려는 도다」(3)은 23~24행이 다시 애인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나타낸 곳이라 하고 (6)은 23행을 환상적 세계로의 도피라기 보다는 그러한 도피를 유발시키는 대립적 현실을 보여 주려는 뜻으로 보며(별이 흐려지고 물결이 자자지는 것을 어두운 현실로 본 듯함) (7)은 이 행을, 4련의 손수 다가둔 침실로 애인을 유인, 7련의 네손이 내목을 안는 정사의 시작, 10련의 침실이 부활의 동굴이라는 정사의 현장으로 고조되어 이제 「어둔 밤 물결이 자자지려는」것을 성행위의 끝남으로 보고 있다. 24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의 예가 없어 이를 23행과 연관시켜 볼 때, 동이 트면 별들의 반짝임도 흐려지고 검은 물결도 점점 자자지게 될 것이며, 안개도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어둠과 밤에만 만날 수 있는 너는 동이 트기 전으로 와야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나려도 끝내 「나의 아씨」는 오지 않으며 아씨를 부르는 화자의 애타는 심정만 여운을 남기며 지속된다. 실상 이 시는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아 「마돈나」가 나타나면 6련말이건 10련 말이건 어디에서 끝이 나도 무방한 전개를 하고 있다. 그것은 시의 의미의 전개 뿐 아니라 형식의 전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 시는 「緋音」 즉 붉은 비단의 노래, 불꽃같이 붉게 타는 기다림의 마음을 노래한 시이며, 부제에서 말한 「아름답고 오랜 것」 즉 구원한 것은 현실에는 없고 꿈 속에만 있다는 꿈과 이상을 노래한 시로 읽을 수 있게 된다.

3. 〈나의寢室로〉 재해석

위의 글에서 이 글은 〈나의寢室로〉에 대한 해석상의 여러 견해를 비교하였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재해석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련,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자정에서 새벽으로 가는 시간이다. 시인은 이러한 시간의 밤을 평화스럽고 포근한 밤이 아니라 연회나 잔치에 다니노라 피곤한 밤으로 상정하여, 그것은 시인 자신의 지치고 피곤한 심신과 같다고 표현한다. 그같이 지치고 피곤한 심신을 휴식하고 위무하기 위하여 「寢室」(이 말은 4련에서 비로소 등장한다)로 가고자 하는데 침실로 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여성, 그러나 아름답고 고운 육체도 가진 여성 「너」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러한 여성인 마돈나가 빨리 와야한다고 한다.

2련,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장소도 밝은 곳, 세인과 더불어 사는 장소가 아니라 화자만 아는 은밀한 장소인 그곳으로 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빨리 와야 하는데 내가 기다리는 너는 지치고 피로한 나(화자)를 위무 해주고 휴식을 줄 수 있는 실체를 가진 사랑하는 「너」이면 되는 것이지 몸단장하고 목걸이나 팔찌를 달고 성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3련,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에서 화자는 세인이 볼까하여, 그리고 한정된 시간(날이 새는 시간)이 지나가 버릴까하여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기에 화자는 어디에선가 첫 닭이 우는 것 같고 못개가 짚는 것 같은 환청에까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이 행을 실지로 첫 닭이 울고 못개가 짚었다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아직 자정에서 새벽으로 흐르고 있는 시간의 일점에 화자는 있으며 첫 닭이 울고 못개가 짚었다면 우리는 「탐음이 오면 어대지도 모르게 숨는」 소멸되어 버리는 두 별이므로 이 시는 더욱 진행될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시의 마지막 행에 가서야 별들의 웃음이 흐려지려 하고 어둔 밤 물결도 자자지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4련, 이 시의 핵심어 중의 하나인 「寢室」이 처음 나타나는 곳으로, 「寢室」은 「나의 아씨」가 있으므로 의미를 띤다. 그러므로 침실은 나의 아씨와 함께 가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휴식과 위무를 받을 수 있는 곳이며, 그곳으로 아씨를 데리고 가기 위해 아무도 몰래 내 손수 지난 밤이 새도록 닭아는 곳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나의 아씨는 나타나지 않고 화자는

초조하고 애타는 마음에서 그 발자욱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5련, 화자는 길이 어두워 「나의 아씨」가 오지 못할까봐 마음 속에 켜둔 촛불 (이 촛불은 남이 볼까 두려워 실지로 켜지 못한 맘속의 촛불이다) 을 보라고 한다. 너무도 가냘픈 촛불이기 때문에 양털같은 바람결에도 견디지 못하고 얇고 푸른 연기를 남기면서 꺼지려 하고 있다.

6련, 「마돈나」여, 이제 밤도 자정을 넘어 점점 어둠 속으로 파묻혀 간다. 시간이 더 지나 가면 너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오너라, 네가 오는 것을 누가 보기라도 할까 봐 내 가슴은 뛰다.

7련, 이제 날이 새려 하고 있다. 새벽 예불을 드리면서 치는 「사원의 쇠북」이 울리면 이미 날이 새어 버리고 그렇게 되면 너는 오지 못할 것이므로 그 쇠북이 울리기 전에 네가 어서 와서 내 목을 안아라. 그러면 나는 너를 안고 영원한 나라, 괴로움과 쓰라림이 없는 피안의 나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명부의 세계로 가자.

8련,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화자 자신만이 갈 수 있는, 아주 가기 어려운, 나 아니면 아무도 열 이가 없는, 그러나 안타깝고 두려울 정도로 가고 싶고 가야만 하는 침실로 가기 위해 나의 아씨여 바람이 불어 오듯 그렇게 가볍게 오라, 그런데 정말 지금 네가 오고 있느냐고 화자는 묻는다.

9련, 애타게 기다리는 마돈나가 오지 않기 때문에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나타난다. 그런데 아직 화자는 그것이 내몸의 피란 피 가슴의 샘이 말라버린듯, 마음과 목이 타는 듯해서 미칠 것 같을 뿐, 아직 미치지는 않았음을 안다. 그래서 가엽서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하고 자문하고 스스로를 가엽게 느낄 줄 안다.

10련, 영원한 세계 즉 죽음의 세계로 사람이면 누구라도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끌려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가자. 인간적 현실적 제약을 넘어서 거기서 인간적 현실적인 괴로운 삶이 아닌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한 사랑과 삶을 누리자. 너는 성서에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 막달라 여자 마리아처럼 내 말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새삶과 영원한 생을 약속하는 곳이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침실은 그러므로 예수가 부활한 동굴과 같은 것이다.

11련, 「밤이 주는 꿈」은 자면서 꾸는 꿈이고 「우리가 엮는 꿈」은 살아

가면서 바라고 이루고자하는 꿈 또는 회원인데 이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안고·궁그는 목숨의 꿈」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다르지 안흐니」라고 표현했을 때 이 말은 결과적으로 生과 死는 如一하다는 불가적 의미를 지닌 것이며 삶은 짧고 죽음은 영원한 것이므로 인간적인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歲月 모르는」 「오랜 거긔」(명부의 세계)로 가자고 화자는 말한다.

12련, 이 시 전체를 보면 화자는 1·2련에서만 어느 정도 차분하게 제 말을 하고 있고 3련 이후는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하고 스스로를 의심할 정도로 초조해 하고 안타깝게 마돈나를 기다리는데 그래도 마돈나는 오지 않고 이미 동이 트고 날이 새려 한다. 별이 희미해지고 물결이 자자지고 안개가 사라지려 한다. 그래도 「너」는 오지 않는다. 이제 화자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 기다림을 포기하는 길과 그래도 기다려 보는 길이다. 그러나 너를 기다림은 나의 숙명이므로 나는 너를 기다릴 수 밖에 없고 너를 부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4. 맺 음 말

시를 해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어는 애매성을 가지고 있고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를 정확하게 읽는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더우기 상징성이 있는 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그 일이 어렵다고 해도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일을 해 왔고,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화의 시 〈나의寢室로〉를 중심으로 시의 읽기를 기왕의 연구서들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시 〈나의寢室로〉는 구절마다 따져 나갈려면 그 전체적 뜻은 파악하기 힘들며, 그 슬픈 안개 속에 울려 오는 허수아비의 자탄과 독백을 들으면 그 뿐¹¹⁾이라고 한 견해가 있을 정도로 이 시의 문맥적 해석은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시 〈나의寢室로〉에 대해서 갖는 대체적인 견해는, 이 시가 조국상실과 민족의 해방을 노래한 사회 지향의 시인가, 아니면 시대 사회적 현실과는 관계가 없는 개인적 사랑과 애욕을 노래한 시인가 하는 것으로

11) 박목월, 시창작법, 선문사(1954), p. 158.

기울어져 있었지만, 위에서 비교 검토한 10편의 논문들 가운데는 이 시를 사회지향의 시로만 본 경우는 (8)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없다. (1)의 논문은 「침실은 부활의 동굴」이라는 말에 대해 제의적 풀이를 하면서, 죽음과 재생의 신화적 구조로 보아 이 시는 연시도 될 수 있고, 존재초월이나 애국시도 될 수 있다고 하여 단정을 피하고 있는 셈이고 (3) (5) (7)의 논문은 대체로 개인적 사랑과 애욕을 노래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는 일원적인 주제파악을 하려면 편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다층적인 상상력과 구조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런 관점으로 검토하면 이 시는 시인 자신이 정열과 회원, 현실 인식을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 연시의 형식으로 노래하면서도 현세보다는 내세를, 연인을 구원의 여성상으로, 밝음보다는 어두운 시대 상황을 포괄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는, 아름답고 오랜 것은 현실에서는 없고 죽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제시를 하지 않아 20년대의 낭만적인 시들이 갖는 공통적인 함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사정은 그의 대표적 저항시로 알려져 있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까지도 면면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